

《더 컬러 퍼플》에 투영된 번역의 묘미

20여 년 만에 되살린 '색깔' 20여 년 만에 되살린 '말투'

내가 1년 넘게 끙끙대며 붙들고 있는 번역 일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흑인 영어'의 번역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 '흑인 노예들이 사용한 영어'라고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흑인 영어'로 통일하자).

글_박중서

흑인 영어라고 하면 한동안은 '충청도 사투리'('...해유'나 '했슈')로 바뀌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안정효가 《번역의 테크닉》에서 이를 비판한 적이 있다. 즉 흑인 영어를 우리나라 특정 지역 사투리와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단순히 억양이 다른 것뿐 아니라 문법이나 단어의 구사가 어색한 것이기도 하니, 차라리 외국인이 구사하는 "어눌한 한국어"로 옮겨주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이 대목을 읽고 나자 문득 흑인 영어는 우리가 흔히 흉내 내는 외국인의 한국어 말투, 가령 말끝마다 '...해'를 붙이는 중국인의 말투라든지, '...(스)무니다'를 붙이는 일본인의 말투 쪽에 가까운 것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런 말투 역시 우리가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소산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흑인 영어에서 시작한 번역의 고민

그리하여 안정효가 제시한 해결책은 흑인 영어를 일단 표준어 문장으로 고친 뒤에, 마치 우리말에 서투른 외국인의 말투처럼 '단어 배열 식'의 어눌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었다. 안정효가 번역한 책들 중에서 그런 '흑인 영어'가 많이 사용된 책은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그리고 엘리스 워커의 《컬러 퍼플》이 대표적이었다. 안정효는 1977년에 출간된 《뿌리》에서 맨 처음 이를 시도했지만, 출간기한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역을 하다 보니 원래 의도와는 달리 그냥 표준어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2004년에 열린책들에서 나온 개역판 《뿌리》는 본인의 소망대로 '완역'에다가 '흑인 말투'를 고스란히 살려 놓았다).

엘리스 워커의 소설 《컬러 퍼플》도 《뿌리》와 마찬가지로 초판본에는 없던 흑인 영어 말투를 개정판본에서 다시 살린 경우다. 1986년에 나온 초역본 《보라빛》은 문장을 표준어로 번역했지만, 2004년에 저자의 방한에 맞춰 나온 개정판본 《더 컬러 퍼플》은 최대한 역자의 의도대로 원문의 말투를 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흑인 영어라고 해도, 《컬러 퍼플》 번역문은 또 한 가지 점에서 《뿌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 소설은 반(半)문맹인 주인공 셀리가 쓰는 서간체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흑인 영어'에다가 '틀린 철자'까지 구사된다는 거다.



《보라빛》

앨리스 워커 지음 | 안정효 옮김 | 문경 | 352쪽 | 절판

《더 컬러 퍼플》

앨리스 워커 지음 | 안정효 옮김 | 한빛문화사 | 360쪽 | 절판

그리하여 초판본에서 “난 열네 살예요. 옛날부터 난 착한 계집아이였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도록 하느님이 계시를 내려주시면 좋겠군요”라고 번역되었던 첫 문장은, 개정판본에서 “나 열넷살요. 나 언제나 착한 아이요. 나 어떻게 되는지 하느님이 계시 내려주면 조кет서요”로 바뀌었다. 물론 이는 번역이나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주인공 셀리의 의식과 지식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 장치로, 주인공은 어려서는 문법이나 철자가 영망이다가 나이 들어서는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번역자 역시 이것이 완벽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뉘앙스를 살리려는 시도에 불과함을 시인하긴 했지만, 지금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나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시도이자 선택이 아닐까 싶다.

영화에 밀려난 원작소설

1983년 풀리처 상 수상작인 앨리스 워커의 《컬러 퍼플》은 사실 우리에게 1986년에 제작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로 더 유명하다. 나 역시 이 작품을 당시만 해도 무명이었던 우피 골드버그와 오프라 윈프리가 출연했던 그 영화로 처음 보았는데, 비록 평론가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상당히 뛰어난 작품이었다. 다만 영화 도중에 간혹 우스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진 혹은 스피버그라는 ‘오락영화’ 감독이 진지한 작품을 지나치게 희화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긴 했는데, 뒤늦게야 원작 소설을 읽어보고 오히려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원작 소설 자체가 눈물과 웃음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빼어난 작품이고, 오히려 스피버그는 비교적 원작에 ‘충실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안정효의 초역본 《보라빛》은 1986년 3월에 출간되었고, 영화 《컬러 퍼플》은 10월에 국내 개봉되었다. 당시 이 영화는 미국에서는 스피버그가 아카데미상을 노리고 만든 ‘진지한’ 영화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할 당시에 입장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현행 2,500원에서 무려 3,500원으로)했기 때문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렇다면 영화가 인기를 끌었으니, 그 원작인 《보라빛》도 인기를 끌어야 할 텐데, 이쉽게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이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출판 풍토와도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무슨 영화가 하나 인기를 끌면 그 ‘원작소설’이 아니라 ‘영화소설’, 그러니까 영화 줄거리를 소설로 재구성한 책들이 서점에 쪽 깔리곤 했다. 내 기억에도 영화 《컬러 퍼플》이 개봉된 직후에도 이런저런 조악한 ‘영화소설’ 《컬러 퍼플》이 출간된 바 있었다(원작인 서간체 소설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 안정효의 제대로 된 ‘원작소설’ 역시 그 서술에 밀려나 버리고 말았는지 모른다.

컬러 퍼플, 자줏빛 꽃이 잔뜩 피어 있는 들판

그런데 나는 이 유명한 작품의 제목과 본문에 나오는 ‘컬러 퍼플’이 과연 무엇인지가 꽤 오래 전부터 궁금했다. 단순히 ‘색깔’은 아니다. 심지어 안정효의 초판본 제목은 《보라빛》이지만, ‘자주색’ (퍼플)과 ‘보라색’ (바이올렛)은 분명히 다른 색깔이다(개정판에서는 《더 컬러 퍼플》로 하고, ‘자주색’ 표지를 썼다).

본문의 ‘컬러 퍼플’이란 표현은 초판본에서는 ‘보라빛’으로, 개정판본에서는 ‘자주색 들판’으로 번역되었다. 미국에서도 이 단어의 의미는 구구한 추측을 낳아, 일부에서는 특정한 ‘꽃’이나 ‘식물’을 가리킨다고, 또 일부에서는 ‘사랑’이나 ‘용기’나 하는 추상적 개념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떻게? 스피버그의 영화는 ‘자줏빛 꽃이 잔뜩 피어 있는 들판’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셀리와 네티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분명 원작자에게서 자문을 얻었을 터이니, ‘컬러 퍼플’의 뜻으로는 아마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한**

박중서님은 에이전시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 《젠틀 매드니스》(공역)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등이 있다.